

한스경제

hansbiz.co.kr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15판

한스경제 Brief

가상자산 한파 속 NFT도 얼어붙나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대체불가 토큰(NFT)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NFT 사업 진출을 이어가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자금세탁과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가상자산 분석 데이터업체인 톰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NFT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역대 최고액인 170억달러(약 24조 4800억원)에 이르렀으나 9월에는 4억 6600만달러(약 671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NFT 시장의 규모가 최대치 대비 97%나 폭락한 것이다.

김현결 기자
▶기사 6면

[KES 2022] 삼성·LG전자 '혁신 가치'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2(한국전자전)



에 참가해 맞춤형 라이브 솔루션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 등 혁신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두 회사는 스마트홈 서비스인 삼성 스마트싱스와 LG 씬큐 앱을 통해 가전과 공간 융합을 제안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만의 스마트싱스 활용법을 찾아볼 수 있는 5가지 테마 체험존을 전시장에 마련해 고객들이 실생활 속에서 스마트싱스 일상도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연결경험을 제공했다.

최정화 기자
▶기사 9면

여야 “버르장머리” 막말·고성.. 주도권 싸움 치열

외투위, 박장관 출석 하자마자 정면충돌
野 “文 서면조사 정치 보복” 플랜카드
‘감건희 표절논란 증인 채택’ 놓고 또 맞붙

4일 ‘외투활동의 꽃’이자 ‘민의를 촉제’라 불리는 국정감사(국감)가 시작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라 특이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관련기사 23~4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된 상황에 예고된 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감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첫 날부터 주요 국감장에서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정치규탄 플레카드가 등장했으며 파행까지 가는 상황으로 번지는 등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정치적 공방을 펼쳤다.

30분 만에 중단된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장의 정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방이고 성과가 상당하며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려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박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고, 회의는 개의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권인 줄 단하리’ 파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버르장머리’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야당의 ‘거짓말 정부’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었다. 고성은 막말로 이어졌고, 사과를 요구하는 촛구닥까지 벌어졌다.

이혜식 민주당 의원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서관-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국가대통령의 비서관 논란 등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쑥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김효동 민주당 의원이 이만희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발언하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라고 그러느냐”라고 받아치면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향했다. 이혜식의 국민의힘 행안위원장이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버르장머리’ 발언을 사과한 뒤에야 상황이 정리됐다.

‘정치권인 줄 단하리’ 파켓 등장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민주당은 ‘정치권인 줄 단하리’는 파켓을 좌석에 붙이며 항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국권을 전횡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발부했다. 즉각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 깨는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정점으로 부각됐다. 여야는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속명예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이외의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질타했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붙었다.

RA 논쟁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논쟁의 화두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정부위원회 국감에서는 IRA의 미국 의회 통과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응을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 대사 등 자타 공인하는 정통 전문가인데 도대체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유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순방 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만났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IRA를, 한미 통상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한 것 말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영빈관·대통령실 이전 학두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영빈관 신축에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극방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말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며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로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화 기자 daegon4@hansbiz.co.kr

“무서워서 장 못 보겠네”... 오르고 또 오르는 ‘먹거리 물가’

라면 9.8%·과자 최대 15.8% 상향 조정
하반기 제인상 체계... 소비자 부담 가중
“원료값 정상화 돼도 가격 인하 어려워”

지질 줄 모르고 오르는 먹거리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라면, 과자 등을 비롯한 식품 가격 도미노 인상이 이어진다.

빙그레는 지난 1일부터 과자 제품 6종 가격을 평균 13.2% 올렸다. 꽃계란, 야채담미, 자키자키, 스모키 베이컨칩 등 과자 6종에 대해 판매 가격을 약 13% 상향 조정했다.

삼양식품 역시 같은날 사모바, 팥구, 뽕이 등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3% 올렸다. 팔도도 이날부터 12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9.8% 상향 조정했다. 김치 업계에선 국내 포장

김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이 증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렸다.

오리온은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올렸다. 주요 제품별 인상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고보칩 11.7%, 예강 25.0% 등이다.

업체들은 밀, 팥유 등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 인건비 인상으로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원 달러 환율 상승도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또 다시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공 식품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과 맞물려 판가 인상으로 소비자에 가격을 전가하고 곡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익이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최근 가격 인상 주자가 점점 줄어지는 점역 시 추가 인상 무기에 원을 신고 있다. 과거 라면 업계 판가 인상은 4~5년 주기로 이뤄져 왔는데 최근 농심과 팔도는 1년 1개월, 오뚜기는 1년 2개월 만에 여러번 가격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식품업체의 가격 도미노 인상이 유류 따지보겠다며 국감에 소환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열린 국감 증인으로 임영찬 CJ제일제당 부사장과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삼구 농심미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등을 채택했다.

고물가 흐름 속 업체들은 판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밀과 팥유 등 원재료 가격이 정상화 되더라도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측은 “고물가 시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

도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의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료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만큼 육류와 육가공품 역시 가격 오름세를 볼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가자수) 1927.0 2분기보다 18.1% 상승하고 사료용은 1911.0 20.4% 비싸진다고 전망했다.

앞서 발표한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밀(소맥)과 팥유류의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63.5%, 73.9% 올랐다. 올 2분기 선물가격지수는 1933.0으로 급등했다.

고물가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원재료의 가격인상 요인이 해소된다 한들 가격을 내리 내리하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양지원 기자 jwon04@hansbiz.co.kr

디지털 사회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위기

네 가지 뉴 노멸을 마주한 인류가 가야 할 제4의 길

지속가능한 '참 발전'을 제시하다!

네 가지 뉴 노멸은 인류가 만들어낸 것으로 축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네 가지 뉴 노멸이 가져올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어떻게 '담대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인류사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현훈 | 308쪽 | 17,000원 | 파지트